

아이디어 화장품, 일본에서 인기

일본 화장품업체 '루미코'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매일 하고 싶고, 해야 하는 화장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아이디어 화장품을 선보이고 있다.

2000년대 이후 분홍색 아이라이너, 핑크빛 시트 마스크, 화장지처럼 돌돌 말려 있어 은박지처럼 쓰고 싶은 만큼만 잘라 쓸 수 있는 기름종이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가 담긴 화장품을 선보인 '루미코'는 미국 뉴욕에서 10여년간 나오미 캠벨, 신디 크로퍼드 중 유명 모델 화장을 담당해온 일본인 메이크업 아티스트 루미코가 지난 97년 일본에서 만들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이 업체의 수석 메이크업 아티스트 후지무라준씨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아이디어 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지난 여름에는 금빛 나는 작은 돌 모양을 촘촘히 수놓은 아이라이너 대용 테이프를 선보여 큰 인기를 누렸다'고 설명했다. 아이라이너 그리는데 시간이 3분 이상임을 고려할 때 1분만에 아름다운 눈매를 연출해주는 이 아이라이너가 아침 시간이 바쁜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화장품이었던 것이다.

루미코가 이번 겨울에 선보인 화장품은 분홍색 립글로스 아이세도. 분홍색 화장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루미코는 '동양 여성은 얼굴에 색을 입히는 일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고정관념을 깨고 과감히 분홍빛을 얼굴을 물들인다면 유행의 첨단을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새 방송 지적재산권 국제조약 마련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회원국들이 최근 제네바에서 회의를 갖고 내년 6월까지 방송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를 골자로 하는 새 방송 관련 지적재산권 조약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파인애플타임스는 지난달 13일 이들 회원국이 인터넷과 케이블TV 등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걸맞은 방송 저작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2005년 중반에 이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WIPO는 '방송의 디지털화와 인터넷 전송, 이에 따른 저작권 침해 행위 등에 대응, 방송사의 권리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방송의 저작권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늘이는 방안, 인터넷 방송에도 일반 방송과 같은 수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방안 등이다. 이 보다는 그러나 많은 비정부기구(NGO)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창의성이 덜 개입되는 방송 프로그램에 일반 저작물과 같은 50년의 보호 기간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지적권 회원국들의 논의가 가장 최근 방송일로부터 저작권이 발효되도록 해 사실상 영구적인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방송국이 저작권이 만료된 작품이나 기록 영상 등 공공 자원을 방영한 후 저작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은 인터넷 방송에 대한 저작권 보호까지 포함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야후 등 대형 인터넷 업체들은 웹캐스터들이 기존 TV나 라디오 방송국과 같은 수준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반면 일본이나 개발도상국은 초창기인 인터넷 방송 산업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사, 중국 지적재산권 시장잡기에 나섰다!

외국 투자자본의 중국 지적재산권시장 투자와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 신화통신은 지난달 6일, 지적재산권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상하이 지적재산권 교역소 통계를 인용하여 올해 10월까지 해외 기업의 중국 첨단기업 주식 거래액이 43억6천4백만위안(약 6천5백억원)에 달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6%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주로 사들이는 종목은 인터넷 판매, 건축재료 개발,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관련된 주식이고 매수 비율은 대체로 구매 기업의 25~35% 수준이며 최고 60%에 달하기도 했다. 이들 외국 기업은 미국, 영국, 프랑스 등 10여개 국가의 다국적 기업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또한 외국 기업이 주식투자뿐 아니라 신기술 중국 이전도 줄을 이어 올해 7월 한 조사수치에 따르면, 일본 기업이 수천개의 신기술을 중국으로 이전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만화로 보는 발명·특허 이야기 발명가의 10대 자세 ④

감수/오해정
글/왕연중
그림/김민재

규칙이 전부는 아니다

자 발명가의 10대 자세중 네번째는 「규칙이 전부는 아니다」

자 발명가의 10대 자세중 네번째는 「규칙이 전부는 아니다」

어제 어울린다고 해서 드림이냐 또 알고 오셨네~!

한마디로 발명에 있어서 규칙에만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란다.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얘기란다.

특히 파괴적이라는 뜻은 발명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사고 개념을 의미한다.

즉 기존의 상식과 지식을 깨뜨리고 무너뜨린다는 거지

그러나 규칙에 도전하는 것만이 반드시 발명적 생각을 유도한다는 말은 아니다

즉 발명이란 새로운 방법을 위해 개척자처럼 규칙에 도전하는 것이란다.

단지 혁신적인 변화를 기대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지

여하튼 규칙에만 너무 얽매 있고 그것이 절대적인 것 마냥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변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규칙에 포로가 된 아이디어들>

살려주세요~!

명심할 것은 「모든 규칙엔 예외가 있다」 라는 것이야 이 예외를 향해 도전해 보길 바란다.

아하하 그런거군요!! 전 그동안 너무 규칙에만 얽매이고 있었네요!

그래, 똥이도 규칙에서 벗어나 보다 창조적인 생각을 가져보거라

가만, 저녀석이 규칙에 얽매었다고?

애들 참 답답하네, 도서관에서 핸드폰 끄라는 규칙에도 예외는 있는 거라구

??!!

워, 워아~ 저녀석~!!

다들 날 좀 봐봐

누구야?! 도서관에서 핸드폰 켜 놓은 사람이!

벌소리도 언제 유행했던 건데~!!